



조 옥 봉 역
(본회 경북도협의회장)

◆ 머리말

현재 EC(유럽경제공동체, EEC)는 12개국*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국은 어느정도 융통성있는 협정-금융이나 법률면에서의 연계 및 모든 면에서의 공통동의-아래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92년까지 법률은 더욱 동맹국간에 긴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정비될 것이다(66%는 이미 작성되어 있다). 단일유럽시장 "Single European Market"이라 불리는 그 곳에서는 국경의 장벽을 넘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계획되고 있다.

이때에 국경관리는 없어진다. 또는, 최악의 경우에도 극히 최소한의 설비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EC 내의 제조업자들은 자유롭게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된다. 관세는 물론, 국내에서 다른 세금, 복잡한 서류 등의 비관세장벽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경에서의 패스포트 제시도 없어진다. 그리고 EC 패스포트가 공동체 이외의 국가로 갈때에만 이용된다. 개인차원의 소비도 마찬가지로, 물품은 관세없이, 같은 부가가치세(VAT*²⁾)를 지불하면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표1〉 EC에서의 돈육생산(주요생산국)

구 분	번식모돈수 ¹⁾ (1000두)	순 위	연간돈육생산 량 ²⁾ (1000t)	순 위
서 독	2,457	1	3,112	1
(동 독)	(1,067)		(1,375)	
스 페 인	1,928	2	1,725	4
네 델 란 드	1,507	3	1,892	2
프 랑 스	1,168	4	1,794	3
덴 마 크	1,029	5	1,198	6
영 국	871	6	963	7
이 탈 리 아	762	7	1,208	5
EC 12 개 국 계	11,030		13,165	
(동 독 포함)	(12,097)		(14,540)	

1) 8월 센스에 의한 것. 미경산모돈도 포함한다.

2) MLC(영국식육가축협회 1991)에 의한 1990년 추정치, 지육기준

◆ 유럽통합의 목적

1992년 말까지 국경이 없는 유럽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은 사람, 물건,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EC지역내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경쟁은 강화되고,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EC 위원회에 의하면, 단일시장은 20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금보다도 생활수준이 6%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간의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도 보다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운송의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식품의 가공 소매업자들은 보다 간단히 EC내 어느 지역에서도 원료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자본과 인간의 자유로운 왕래는 식품산업의 생산에서부터 소매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지역내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돼지의 생산과 돈육 산업에도 발생될 것이다.

단일시장의 형성은 EC지역 이외의 국가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1. 전체 동맹국이 같은 협정, 관세, 세, 법률 즉 EC의 규칙에 준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2. EC 내에서의 수출정책이 보다 조정된다. EC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물품은 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원료는 균일한 것이 사용되어져 비용이 저하된다.

3. 거의 3억3600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갖는 거대시장이 된다.

4. EC내에서 생산될 것인지, 수입될 것인지, 상품의 정보, 평가가 보다 빨리 전달된다.

자본과 인간의 자유로운 왕래는 식품산업의 생산에서부터 소매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지역내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EC내에서의 돈육생산

돈육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식육이다. 1인당 연간 39kg의 돈육이 정육 및 베이컨을 비롯한 가공품의 형태로 소비된다. 그에 비해 쇠고기는 22kg, 가금육은 18kg, 머튼 및 램은 4kg이다.

1980년대 유럽의 양돈산업은ダイ나믹한 변천을 이루었다. 즉, 생산은 30% 이상 증가했고, 그 한편으로 소비도 25% 증가했다. 생산증가는 덴마크, 이탈리아, 서독의 뒤를 추격하듯이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도 증가되었다. 영국에서는 약간 증가한 데 그쳤다.

소비가 신장된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서독으로, 많지는 않지만 프랑스도 신장됐다.

영국에서는 소비형태가 약간 변화되고 있다. 즉, 정육(포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베이컨의 소비감소가 상정하듯이 가공품 소비는 감소했다.

그러나, 베이컨의 소비감소는 수입제품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돈육자급율은 최근 10년간 10%나 증가하여, 현재는 약 70% 정도이다. EC내 주요 돼지생산국과 돈육소비국은 <표1, 2>와 같다.

〈표2〉 EC에서의 돈육생산(주요소비국)¹⁾

구 분	소 비 량 (1000톤)	순 위	1인당 소비량 (kg/명)	순 위
서독	3,645	1	58.7	2
(동독)	(1,247)		(77.9)	
프랑스	2,098	2	37.4	6
스페인	1,776	3	30.9	8
영국	1,752	4	45.1	5
이탈리아	1,386	5	24.2	10
네덜란드	650	6	47.0	3
EC 12 개국 계 ²⁾	12,804		39.2	
(동독 포함)	(14,051)		(41.0)	

1) 1989년

2) MLC에 의한 추정치, 지육기준.

◆ 유럽통합은 돈육 및 양돈 관련산업의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돈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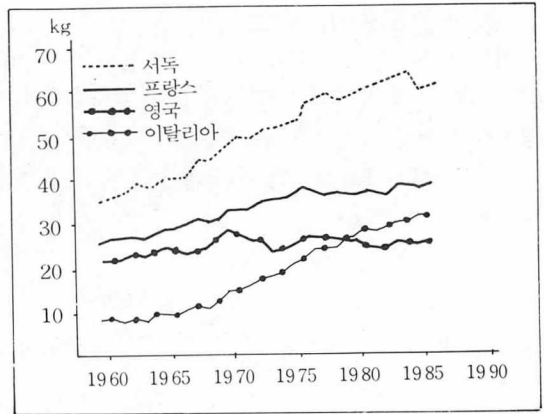
〈표1, 2〉는 1989/1990년도 자료로, 독일통합 이전의 수치이다. 수요는 많아서, 적어도 17만5000톤의 돈육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독이 EC에 참여한 후부터 돈육 부족분은 단숨에 5만톤으로 감소되었다.

이 정도의 부족분은 생산증가에 의해 얼마 안 가 해결될 것이다. 현재, EC에서는 농장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생산이 연간 1.8%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돈육으로 환산하면 연간 2만5000톤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재구축되어, 거대화한 EC내에서 돈육은 자급, 혹은 그것에 가까운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돈산업으로의 투자가 EC 내 일부 국가,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1992년까지는 확고한 일이 될 것이다.

돈육 소비의 장래를 예견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건강에 좋은 영양식품이며,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그림1). 돈육은 유럽 스타일의 요



〈그림〉 국민 1인당 연간돈육 소비량

EC에서는 돈육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리에서 대단히 융통성있는 음식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단일시장에 있어서 여분의 돈육은 강력한 수출력을 갖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덴마크와 같은 숙련된 마케팅과 도축 가공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더욱 그러하다.

〈시설과 기술〉

역시 개인의견이 되겠지만, 소형 기자재 메이커나 양돈 소프트웨어들은 유럽에 있어서 경험을 살려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약간의 예외도 있겠지만.

EC내의 양돈지대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 환기조절 시스템, 돈육가공기술, 수의 서비스, 스톡맨의 훈련, 품종개량 등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세계 각국보다 뛰어나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즉 올바른 생산(최고의 가치 및 최고의 효율)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해외시장개발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단일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보고임에는 틀림없다. 일본의 생산자

나 다른 지역의 양돈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지금까지 유럽의 다양한 전람회, 연구소, 그리고 개인농장을 일본의 양돈가 그룹에게 소개할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

으로는 어떠한 국가에서 어떤 기술이 진전되고 있는지, 또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다.

단일시장으로의 통합계획만이, 그러한 경향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1) EC12개국 : 현재 EC가맹국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12개국. EC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들 가맹국에 의한 통합시장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계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C 위원장인 프랑스의 전 재무부 장관인 자크·드롤씨가 1984년에 취임한 이후 조직된 유럽 부흥계획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2) VAT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유럽 각국에서 징수되는 매상세. 세율은 국가와 제품에 따라 0~30%이상까지 격차가 있다. 유럽 전역에서 VAT 세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말썽없이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992년까지 이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국간의 차이를 다소나마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톱밥, 발효돈사, 기사, 우사, 뒤집기

미국 Atlas 제품



- 톱밥 발효돈사 뒤집기 전문기계
- 기종의 크기가 작아 조작이 간편하며 누구나 작업하기 편하고 기계의 후진변속이 되므로 회전이 용이하다.
- 관리폭은 4단계(64, 52, 48, 32cm)로 농장의 실정에 맞도록 조절 가능하다.
- 5HP(4cycle)엔진 장착으로 힘이 강력하다.



서울酪農社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7-1

TEL : 433-1043, 432-0704

FAX : 492-6332